

곤충 · 벌 등에 의한 자상(刺傷)이나 교상(咬傷)

홍문식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복지진흥부장 · 보건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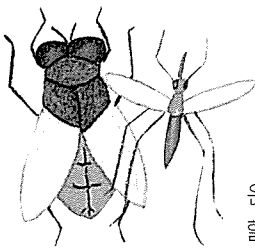
여름철이면 산이나 들에 나가서 활동하는 기회가 많아진다. 날씨가 더워지면 외출 시의 옷차림은 자연스럽게 간편하고 피부가 많이 노출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한편 여름철이면 무성해지는 신록과 더불어 동면에서 깬 뱀이나 각종 곤충들의 번식도 왕성하여 자연환경은 온통 모든 생명의 악동으로 넘친다. 그 때문에 우리는 빈번한 야외 활동 과정에서 각종 곤충과 벌 등을 접할 기회가 있게 마련이다. 이들 가운데 침(針)이나 이빨 또는 바늘같이 날카로운 톱 등으로 우리의 피부를 공격하게 되면 독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각종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물리거나 찔릴 경우 독은 국부 또는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수말벌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가 쏘는 경우라도 많은 독이 주입되기 때문에 인체 반응이 심하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벌은 적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공격은 위협을 느꼈을 때의 방어수단이다. 벌집을 건드리거나 벌이 있는 곳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벌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벌집에 접근하거나 벌이 많이 날아다니는 곳에서는 움직이지 말고 몸을 낮추어 기다리면 공격대상이 되지 않는다.

1. 곤충 등 해충에 의해 물리거나 쏘았을 때



가. 벌

독성을 지닌 벌로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장수말벌, 꿀벌, 말벌류 등이다. 그 외에도 침을 가진 각종 벌들은 거의 다 사람의 피부를 공격할 수 있고 쏘이면 가시에 찔릴 때와 마찬가지로 따끔한 통증을 수반하게 된다. 말벌과 달리 꿀벌의 봉침은 일회성으로

서 벌에 쏘이면 침이 살 속에 박히게 되며 주입된 독성 액체가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꿀벌은 아카시아 꽃 등 꿀이 많은 꽃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장수말벌 같은 것은 고목 밤나무나 도토리나무 등의 상처 난 부분의 구멍 같은 곳에 깊숙이 서식처를 만들어 무리 지어 사는 것을 볼 수 있다.

꿀벌은 몸집이 작은 대신 때를 지어 살기 때문에 집단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설탕을 먹이는 양봉 꿀벌은 거의 봉독생산이 안되고 침도 짧다. 그러나 야생 꿀벌은 상대적으로 봉독이 강하다. 잘못 접근하면 강한 공격을 가해오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노출된 상태에서는 위험하다.

나. 기타 곤충

개미는 벌과 달리 입으로 문다. 흔히 보는 일반 개미는 사람을 잘 물지도 않고 독성도 없다. 몸집이 홍갈색인 불개미도 독성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는 독성이 강한 것도 있다. 이러한 개미는 인체에 심한 반응을 일으킨다. 불개미는 주택 내에서도 번식할 수 있으므로 사람을 깨우는 개미가 발견되면 즉시 구제해야 한다.

모기도 얇은 피부를 통해 타액을 인체의 혈액 속으로 주입시켜 가려움증을 일으킨다.

여름철 흔히 싸리나무 잎 뒷면 등에 흔히 붙어 있는 풀썩이는 자극물질을 순간적으로 주입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털로 몸을 싸고 있어 피부에 스치는 순간 심하게 따갑다.

다. 곤충에 물리거나 쏘였을 때의 반응

- 일반적인 정상반응 : 물리거나 쏘이는 순간 따끔한 통증을 수반한다. 독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려움, 발적, 부종,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 독반응 : 정상반응은 한두 군데 공격받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반해 독반응은 단기간에 여러 군데 공격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다. 벌이나 개미 등에 의해 수백 군데 공격을 받을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10여 군데만 공격받아도 근경련, 두통, 고열, 정신몽롱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알레르기 반응 : 알레르기 반응은 극소량의 독에 의

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공격받은 부위에만 나타나는 국소 반응도 있고 때에 따라 발열, 복통, 현기증, 구토, 호흡곤란 등 전신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심하면 쇼크 상태에 빠지기 쉬우므로 지체없이 응급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봉독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은 쓰인 부위, 쓰인 깊이, 쓰인 양에 따라 증상에 차이가 많다. 한여름엔 봉독도 많고 독성도 강하다.

· 봉독과민증 : 국소반응과 전신반응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전신반응은 봉독이 혈관내로 유입될 경우 나타난다.

· 국소반응은 벌에 쏘이는 순간 즉시 나타나며 과민증에 의해 국소의 부종이 나타나는 것은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 초기에는 약간 붓고 쓰인 부위의 주위가 수분 이내에 직경 3-4cm 정도의 홍반으로 변한다. 다음 단계로는 3-4시간이 지나면 부종이 더 심해진다. 국소의 발적 현상도 심해지고 가려움과 통증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약 12시간이 지나면 절정에 달하고 심하면 증상이 1주일 이상 지속된다. 국소반응은 귀나 눈가풀에 쏘이는 경우 심하게 나타나며 입 부위나 인후부위에 쏘일 경우 부종으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 전신반응 : 전신반응은 벌에 쏘인 후 수분 내에 가법계는 전반적인 홍조,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심하게는 현기증, 구토, 복통, 설사, 심박동 증가, 경련, 실신 등의 반응으로 나타난다.

· 과민증 : 벌에 쏘인 후 수초 내지 수분 이내에 나타나며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전신이 붉어지고, 두드러기, 구토, 착란, 혈압하강, 상기도 폐쇄, 허탈,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라. 곤충에 물리거나 쏘이는 것의 예방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벌은 위험을 받지 않는 경우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 성향이 있으므로 벌집을 건드리거나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에 벌에 접근한 경우라면 움직이지 말아야 하며 뛰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여름에 들이나 산으로 나다닐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향수나 기름 등 자극성이 높은 화장품은 곤충들의 유인제가 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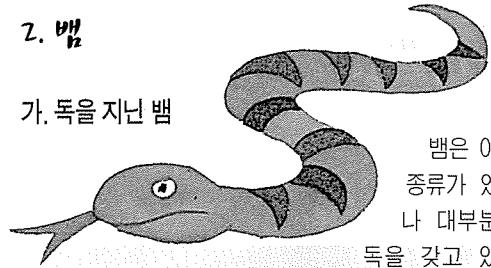
검은 옷은 쏘는 벌레들에게는 자극제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알레르기성 체질인 사람은 과수원 등 벌이 많이 날아다니는 장소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방충망을 하여 곤충 등의 실내침입을 막아야 한다.

마. 응급처치

벌에 쏘였을 때 피부에 침이 남아 있는 경우 뽑아내고 소독을 한 다음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다. 과민반응으로 쇼크를 일으킬 경우에는 신속히 병원으로 간다.

2. 뱀

가. 독을 지닌 뱀



뱀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부분은 독을 갖고 있지

않다. 뱀을 몸에 감고 쇼를 하는 사례를 흔히 보지만 그러한 뱀은 독이 없고 물지도 않는다. 그러나 독을 지닌 뱀은 대부분 그 독성이 강하여 물릴 경우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외국의 독뱀으로는 코브라나 방울뱀 등이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살모사, 까치살모사, 불독사 등 세 종류가 있다. 이들 독사의 특징은 작고 머리가 삼각형 모양이다.

나. 뱀에 물렸을 때

보통 뱀에 물렸을 때에는 위험은 없으므로 물린 부위의 상처를 비누나 물로 닦고 소독액을 바르면 된다. 그러나 독사가 아닌지 잘 판별하기 어려우면 가까운 진료기관을 방문하여 처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사에 물린 부분은 수분 이내로 부풀게 되고 통증이 심하게 나타난다. 우선 응급구조요청과 동시에 부위를 물로 씻어낸 다음 압박붕대나 천 같은 것으로 물린 부위의 아래위쪽을 묶어서 정맥피가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독사에 물린 환자가 함부로 움직이면 독이 온몸으로 빨리 번질 위험이 있으므로 안정시키고 상처 부위는 심장부위 보다 낮게 쥐하도록 한다.

다. 뱀에 물리지 않으려면

독사는 산기슭이나 논두렁 같은 곳의 풀이 무성한 곳에 즐겨 서식하므로 산에나 들에 풀이 무성한 곳의 접근은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에 따라 독사의 출몰이 잦은 곳은 등산이나 산보에 주의를 해야 한다. [7]